

2019 한국FP학회 동계학술대회

일 시 : 2019년 12월 7일(토) 13:30 - 18:00

장 소 : COEX Asem Ballroom, 209A

주 최 : (사)한국FP학회

후 원 : **FPB** KOREA **KFPA** 한국FP협회
Korea Financial Planner Association

2019 한국FP학회 동계학술대회



13:00-13:30 등록

13:30-13:40 개회사 및 환영사

사회: 김성태(동의대)

13:40-14:30 Session 1 (209A) 가계모형연구 발표

제목	연구자
한국가계 지출구조 분석(1990-2018) : 렉시스 다이어그램 분석	주소현 (이화여대) 차경옥 (성신여대) 김민정 (충북대) 김소연 (서울대)

14:40-15:50 Session 2-1 (209A) 학술논문발표

좌장: 성영애 (인천대)

제목	연구자	토론자
IPA기법을 활용한 소비자 집단별 금융교육 내용의 분석 및 제안	손지연 (한국소비자원) 박주영 (충남대)	조혜진 (인천대)
X세대와 밀레니얼세대의 금융상품보유행태 비교	주소현 (이화여대) 유명수 (이화여대) 고은희 (이화여대)	차경옥 (성신여대)
자가주택을 활용한 노후소득마련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최경진 (한국주택금융공사) 임병권 (한국주택금융공사)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의 투자자문서비스 만족과 전환의도에 관한 연구	김지현 (서울대) 손지연 (한국소비자원)	김병태 (한국FPSB)

Session 2-2 (2층 E강의실) : FP Conference 공동세션

제목	연구자
위험관리와 보험설계에의 재무테라피 및 재무코칭의 적용	최문희 (FLP컨설팅) 김민정 (충남대)

16:10-17:20 Session 3-1 (209A) 학술논문발표

좌장: 김도성 (서강대)

제목	연구자	토론자
Oligopolistic distribution channels and the star phenomenon	백 강 (한밭대)	이호선 (부산가톨릭대)
매출채권관리가 중소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승희 (나사렛대)	정현재 (예금보험공사)
에코세대 1인 가구의 가계경제구조 및 소비지출패턴과 주관적 경제상태-부모의 경제적 지원 여부를 중심으로	한다혜 (서울대) 손지연 (한국소비자원) 김난도 (서울대)	김민정 (충남대)

Session 3-2 (2층 E강의실) : FP Conference 공동세션

제목	연구자
신탁의 자산승계수단으로서의 활용과 방향	배정식 (KEB하나은행) 박현정 (KEB하나은행) 공민호 (오렌지라이프) 강신기 (호서대)

17:20-17:30 우수논문 시상식

17:30-18:00 정기총회 및 감사보고

목 차

■ Session 1 (209A) : 가계모형연구 발표	1
• 한국가계 지출구조 분석(1990-2018) : 렉시스 다이어그램 분석	3
/ 주소현(이화여대), 차경욱(성신여대), 김민정(충북대), 김소연(서울대)	
■ Session 2-1 (209A) : 학술논문발표	19
• IPA기법을 활용한 소비자 집단별 금융교육 내용의 분석 및 제안	21
/ 손지연(한국소비자원), 박주영(충남대)	
• X세대와 밀레니얼세대의 금융상품보유형태 비교	37
/ 주소현(이화여대), 유명수(이화여대), 고은희(이화여대)	
• 자가주택을 활용한 노후소득마련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49
/ 최경진(한국주택금융공사), 임병권(한국주택금융공사)	
• 소비자의 투자자문서비스 만족과 전환의도에 관한 연구	71
/ 김지현(서울대), 손지연(한국소비자원)	
■ Session 2-2 (2층 E강의실) : FP Conference 공동세션	87
• 위험관리와 보험설계에의 재무테라피 및 재무코칭의 적용	89
/ 최문희(FLP컨설팅), 김민정(충남대)	
■ Session 3-1 (209A) : 학술논문발표	115
• Oligopolistic distribution channels and the star phenomenon	117
/ 백강(한밭대)	
• 매출채권관리가 중소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27
/ 이승희(나사렛대)	

• 에코세대 1인 가구의 가계경제구조 및 소비지출패턴과 주관적 경제상태-부모의 경제적 지원 여부를 중심으로	135
/ 한다혜(서울대), 손지연(한국소비자원), 김난도(서울대)	
■ Session 3-2 (2층 E강의실) : FP Conference 공동세션	147
• 신탁의 자산승계수단으로서의 활용과 방향	149
/ 배정식(KEB하나은행), 박현정(KBE하나은행), 공민호(오렌지라이프), 강신기(호서대)	
■ 포스터 발표	189
• 펀드 보유패턴의 변화: 2013년과 2018년 비교	191
/ 구지연(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 박사과정), 차경욱(성신여대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교수), 홍은경 (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 석사과정)	
• 자기과신성향, 업무이해력이 금융소비자보호 인식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 - 계층적성격모델을 중심으로 -	193
/ 김지현(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조혜진(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조교수) 최현자(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 보험시장에서의 거래구조 문제와 소비자보호제도에 대한 소비자평가 연구	194
/ 백현진(서울대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손지연(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최현자(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 중국유학생의 의무가입 의료보험에 대한 인식 및 이용에 관한 연구	195
/ 김민정(충북대 소비자학과 교수), 이아름(충북대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신재호(충북대 소비자학과 석박통합과정), 장경형(충북대 소비자학과 석사과정), 임기억(충북대 소비자학과 석사과정)	
• 투자비율이 노후준비 상황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주관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	196
/ 장경영(서울대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손지연(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 신용교육 경험여부에 따른 신용관리역량 차이 - 서민금융지원제도 이용자를 중심으로 -	198
/ 박민주(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 강사), 김민정(충남대학교 소비자학과 조교수)	

■ Session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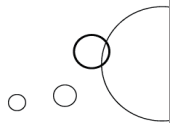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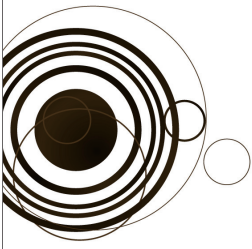
가계모형연구 발표

- **한국가계 지출구조 분석(1990-2018) : 렉시스 다이어그램 분석**
/ 주소현(이화여대), 차경욱(성신여대), 김민정(충북대), 김소연(서울대)



한국가계 지출구조 분석(1990-2018) : 렉시스 다이어그램 분석

주소현(이화여자대학교), 차경욱(성신여자대학교), 김민정(충북대학교), 김소연(서울대학교)



연구배경 및 목적

한국FP학회

한국가계모형 연구

2011년부터 한국 가계의 재무상태를 제시하고 개별 가계가 재무설계 과정에서 재무상태를 평가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벤치마크 제공을 위해 연구 수행

- 평균적인 관점에서 한국가계의 소득지출, 자산부채 규모 및 구성비 제공
- 특별 주제를 통한 한국가계 재무상태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분석 시도

한국가계의 지출구조분석

- 시대적 변화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변화
✓세대 변화
✓라이프사이클 변화
- 렉시스 다이어그램 분석

2019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세대별 및 세대간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지출 구조에 대한 심층 분석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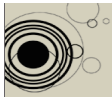
2015

고소득, 저소득 계층에 대한 심층 분석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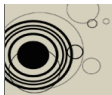
한국가계의 Financial Fitness 분석

- 재무설계에서 세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향후 가계지출 구조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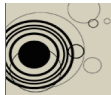
연구방법

- **자료** : 1990년도, 1998년도, 2008년도, 2018년도의 가계동향조사(연간) 데이터
 - 2017년부터 가계동향조사가 지출부문조사와 소득부문 조사 분리됨에 따라 2018년도 자료는 '가계동향조사_지출조사(연간)' 자료 이용
- **분석대상** : 도시 2인 이상 가구
 - 가계동향조사 대상 확대(2003년부터 도시가구 → 전국가구, 2006년부터 1인 가구 포함)로 2008년도와 2018년도 표본 중 2인 이상 도시 가구만 분석에 활용
- **Data 조정**
 - 2018년도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조정
 - 각 연도별 가중치 적용
 - 지출항목 2018년도 지출항목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리 : [표 1]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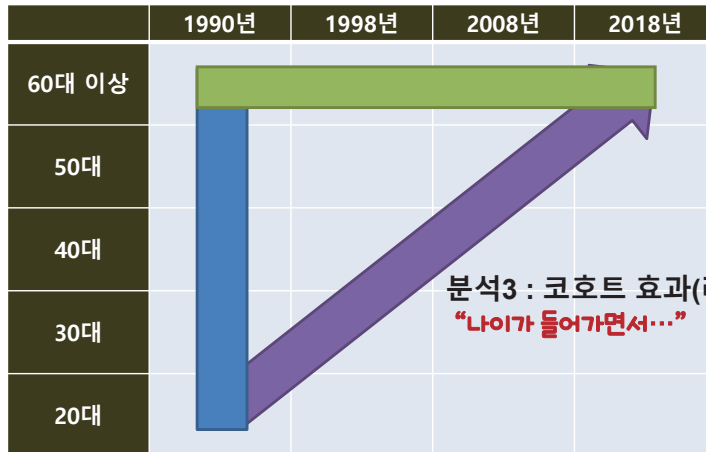


[표 1] 지출항목분류

항목	해설	항목	해설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곡물, 곡물가공품, 빵 및 떡류, 육류, 육류가공품, 신선수산물, 염건수산물, 기타수산물가공, 유제품 및 알, 유지류, 과일 및 과일가공품, 채소 및 채소가공품, 해조 및 해조가공품, 당류 및 과자류, 조식식품, 기타식품, 커피 및 차, 주스 및 기타음료	오락·문화	영상음향기기, 사진광학장비,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등 및 주변기기), 기록매체, 영상음향 및 정보기기수리(영상음향기기, 사진 및 광학장비, 정보처리기기 관련 수리 및 대여서비스), 오락문화 내구재, 악기기구, 오락문화 내구재 유지 및 수리, 장난감 및 취미용품, 캠핑 및 운동관련용품, 화훼관련용품, 애완동물관련용품, 화훼 및 애완동물 서비스, 운동 및 오락서비스, 문화서비스(공연 및 극장, 관람시설이용, 독서실 이용, 문화강습, 컨텐츠, 방송수신료, 기타문화서비스), 복권, 서적(교과서, 참고서 교양서적, 전집류 등 모든 서적류), 기타인쇄물, 문구, 단체여행비
주류 및 담배	주류, 담배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학원 및 보습교육(임시 및 보습, 음악학원, 미술학원, 운동학원, 직업준비학원, 방문학습지, 체험교육, 기타학원교육비, 개인과외비), 성인학원교육(성인직업학원, 외국어학원, 운동 및 교양교육), 기타교육(학교보충교육비, 평생교육원, 국내교육연수*, 국외연수비**) * 국내교육연수: 정규교육기관의 교육을 목적으로하는 여행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및 적립금 **국외연수비: 3개월 미만 해외연수의 경우
의류 및 신발	직물 및 외의, 내의, 기타의복, 의복관련서비스, 신발, 신발서비스	음식·숙박	식사비, 숙박비
주거 및 수도광열	실제 주거비(월세, 기타의 제주거비), 주택유지 및 수선,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기타주거관련서비스, 연료비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이미용서비스, 이미용기기, 위생 및 이미용용품, 시계 및 장신구, 기타 개인용품(가방, 종교용품, 혼례 및 장례용품, 기타개인용품, 개인용품서비스), 사회복지(산후조리원, 보육료, 기타사회복지), 보험(보장성보험, 화재보험, 연금보험, 운송관련보험, 건강관련보험), 기타금융(금융수수료), 기타서비스(부동산수수료, 일반수수료, 법무행정수수료, 응시료, 혼례 및 장례례비, 팁 및 기타서비스)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가구 및 조명, 실내장식, 가구·조명 및 장식서비스, 가정용섬유, 가전 및 가정용기기, 가전관련서비스, 주방용품, 가정용공구 및 기타, 가사소모품, 가사서비스(식품 관련 서비스*, 가사사용인 급료**) * 식품관련서비스:사업자나 기업에 의해 제공되는 식료품 가공관련 서비스 ** 가사사용인 급료: 취사, 세탁, 청소, 재봉 등 가사에 관련된 일을 타가구의 가구원 직접 고용하거나, 관련 사업체의 서비스를 받는데 드는 비용	비소비지출	경상조세, 비경상조세, 연금, 사회보장, 이자비용, 가구간 이전지출, 비영리단체로 이전
보건	의약품, 의료용 소모품,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 외래의료서비스, 치과서비스, 기타의료서비스, 입원서비스		
교통	자동차구입, 기타운송기구 구입, 운송기구 유지 및 수리, 운송기구 연료비, 기타개인교통서비스(운전교습비, 주차료, 통행료, 기타개인교통), 철도운송, 육상운송, 기타운송, 기타교통관련서비스(일반화물 운송 및 보관, 이사화물 운송 및 보관)		
통신	우편서비스, 통신장비, 통신서비스		



분석개요



분석2 : 시대적 효과(year 효과)
“요즘 젊은이, 옛날 젊은이”
 (다른 연도의 동일 연령대 비교)

분석3 : 코호트 효과(라이프사이클 효과)
“나이가 들어가면서...”

분석1 : Cross-Sectional 비교
“같은 시대, 다른 소비”
 (동일 연도의 다른 연령대 비교)



-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연령대별로 소비패턴은 어떻게 다를까?

같은 시대, 다른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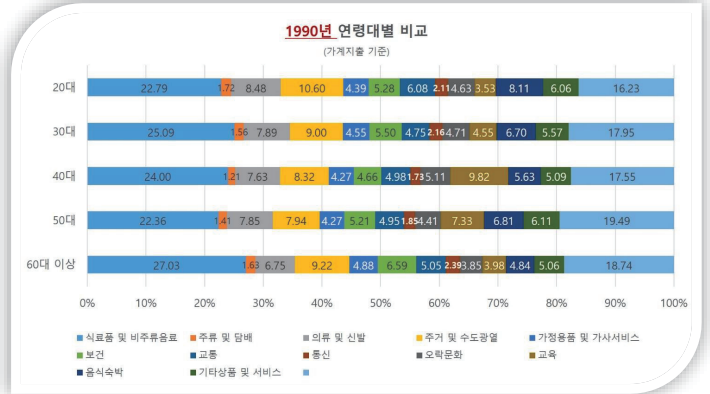
Cross-Sectional 비교
 (동일 년도의 다른 연령대 비교)

	1990년	1998년	2008년	2018년
60대 이상				
50대				
40대				
30대				
20대				

1990년

- 전 연령대 지출비중 상위 5개 품목에 비소비지출, 식료품·비주류음료, 주거·수도광열, 의류·신발 포함
 - 식료품·비주류음료 가장 높음 (특히 60대 이상 27%로 가장 높음)
 - 비소비지출 두번째로 높음(50대 19.5%로 가장 높음)

2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비(10.6%), 음식·숙박비(8.1%) 비중 높음 30대와 지출비중 상위 5개 비록 동일
3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숙박비(6.7%) 50대(6.8%)와 유사하지만 지출비중 상위 5순위에 해당함 ✓ 50대에서 음식숙박비는 6순위에 해당
4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비(9.8%) 비중 높음
5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소비지출(19.5%) 비중 높음 교육비(7.3%) 비중 상대적으로 높음
60대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료품·비주류음료(27.0%) 비중 가장 높음 음식·숙박비(4.8%), 오락문화비(3.8%) 비중 낮음 보건비(6.6%) 지출비중 상위 5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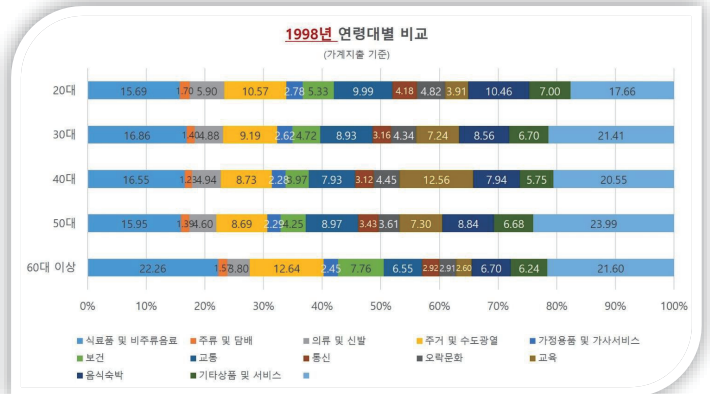
지출비중 상위 5개 비교

- 20대 : 식료품·비주류음료 > 비소비지출 > 주거·수도광열 > 의류·신발 > **음식숙박**
- 30대 : 식료품·비주류음료 > 비소비지출 > 주거·수도광열 > 의류·신발 > **음식숙박**
- 40대 : 식료품·비주류음료 > 비소비지출 > **교육** > 주거·수도광열 > 의류·신발
- 50대 : 식료품·비주류음료 > 비소비지출 > 주거·수도광열 > 의류·신발 > **교육**
- 60대 : 식료품·비주류음료 > 비소비지출 > 주거·수도광열 > 의류·신발 > **보건**

1998년

- 전 연령대 지출비중 상위 5개 품목에 비소비지출, 식료품·비주류음료, 주거·수도광열, **음식숙박** 포함
 - 5순위 내에 의류·신발 불포함 & 음식숙박 포함
 - ✓ 20대 10.5%로 가장 높고, 60대 이상 6.7로 가장 낮음
 - 20~50대 비소비지출이 1순위 (50대 24.0%로 가장 높음)
 - 20~50대 식료품·비주류음료 2순위
 - ✓ 60대 이상 식료품·비주류음료 비중 가장 높음(22.3%)
- 20대, 30대, 50대 : 교통비 비중이 상위 5개 품목에 포함

2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숙박비(10.5%), 교통비(10.0%) 비중 높음 주거·수도광열(10.6%) 높음
3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비(8.9%) 4순위 포함 교육비(7.2%)로 50대(7.3%)와 비슷
4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비(12.6%) 비중 가장 높음 ✓ 90년 9.8% 대비 크게 증가
5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소비지출(24.0%) 비중 가장 높음
60대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료품·비주류음료(22.3%), 주거·수도광열(12.6%), 보건(7.8%) 비중 가장 높음 음식숙박(6.7%), 교통비(6.5%), 오락문화비(2.9%) 비중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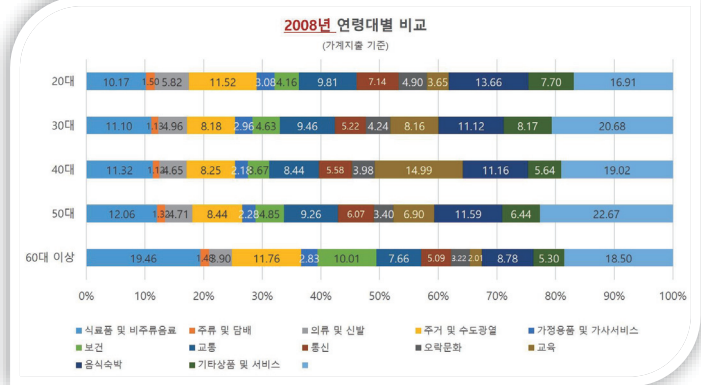
지출비중 상위 5개 비교

- 20대 : 비소비지출 > 식료품·비주류음료 > 주거·수도광열 > **음식숙박** > **교통**
- 30대 : 비소비지출 > 식료품·비주류음료 > 주거·수도광열 > **교통** > **음식숙박**
- 40대 : 비소비지출 > 식료품·비주류음료 > **교육** > 주거·수도광열 > **음식숙박**
- 50대 : 비소비지출 > 식료품·비주류음료 > **교통** > **음식숙박** > 주거·수도광열
- 60대 : 식료품·비주류음료 > 비소비지출 > 주거·수도광열 > **보건** > **음식숙박**

2008년

- 전 연령대 지출비목 상위 5개 품목에 비소비지출, 식료품·비주류음료, 음식숙박 포함
 - 20~50대 비소비지출이 1순위 (50대 22.7%로 가장 높음)
 - 60대 식료품·비주류음료 비중 가장 높음(19.5%)
 - 20대, 30대 음식숙박비 비중이 두번째로 높음
 - 20대 13.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음
 - 60대 이상 8.8%로 가장 낮음
- 60대 이상 제외, 지출비중 상위 5개 품목에 교통비 포함

20대	음식숙박비(13.7%) 비중 높음 주거비(11.5%) 60대 이상(11.8%)과 유사하게 높음
30대	교육비(8.2%)가 50대(6.9%)보다 높음
40대	교육비 비중 15%로 두번째로 높으며, 타연령대와 큰 차이 - 30대 교육비 8.2%, 50대 교육비 6.9% 주거·수도광열비 비중 상위 5개 품목에서 탈락
50대	비소비지출(22.7%) 비중 가장 높음
60대 이상	식료품·비주류음료(19.5%), 주거·수도광열(11.8%), 보건(10.0%) 비중 가장 높음 음식숙박(8.8%), 교통비(7.7%), 오락문화비(3.2%) 비중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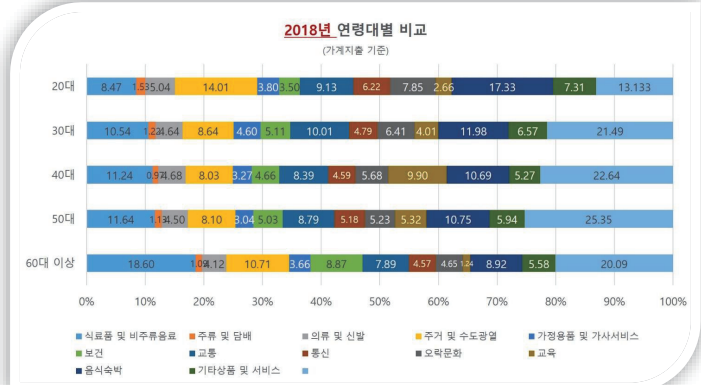
지출비중 상위 5개 비교

- 20대: 비소비지출 > 음식숙박 > 주거·수도광열 > 식료품·비주류음료 > 교통
- 30대: 비소비지출 > 음식숙박 > 식료품·비주류음료 > 교통 > 주거·수도광열
- 40대: 비소비지출 > 교육 > 식료품·비주류음료 > 음식숙박 > 교통
- 50대: 비소비지출 > 식료품·비주류음료 > 음식숙박 > 교통 > 주거·수도광열
- 60대: 식료품·비주류음료 > 비소비지출 > 주거·수도광열 > 보건 > 음식숙박

2018년

- 전 연령대 지출비목 상위 5개 품목에 비소비지출, 식료품·비주류음료, 음식숙박 포함
 - 20대 제외한 연령대 비소비지출이 1위
 - 50대 비소비지출 비중이 25.4%로 가장 높음
 - 60대도 식료품비 비중(18.6%)보다 비소비지출 비중이 20.1%로 더 높음
 - 음식숙박비는 연령대별로 순위 1~4순위
 - 20대 17.3%로 가장 높고, 60대 이상 8.9%로 가장 낮음
- 60대 이상 제외, 지출비중 상위 5개 품목에 교통비 포함

20대	음식숙박비(17.3%), 주거·수도광열(14.0%), 오락문화(7.9%)로 가장 높음 식료품·비주류음료(8.5%), 비소비지출(13.1%)로 가장 낮음
30대	교통비(10.0%)로 타연령대보다 약간 높음
40대	교육비 비중 9.9%로 가장 높으나 연령대간 차이 감소 08년 15.0% 대비 큰 폭으로 감소
50대	비소비지출(25.3%) 비중 가장 높음
60대 이상	식료품·비주류음료(18.6%), 보건(8.9%) 비중 가장 높음 음식숙박(8.8%), 오락문화비(4.7%)로 가장 낮음



지출비중 상위 5개 비교

- 20대: 음식숙박 > 주거·수도광열 > 비소비지출 > 교통 > 식료품·비주류음료
- 30대: 비소비지출 > 음식숙박 > 식료품·비주류음료 > 교통 > 주거·수도광열
- 40대: 비소비지출 > 식료품·비주류음료 > 음식숙박 > 교육 > 교통
- 50대: 비소비지출 > 식료품·비주류음료 > 음식숙박 > 교통 > 주거·수도광열
- 60대: 비소비지출 > 식료품·비주류음료 > 주거·수도광열 > 음식숙박 > 보건

지출비중 상위 5개 품목 변화로 살펴본 시대변화

20대 : 주거비, 음식숙박비 비중 높음
 40대 : 교육비 비중 높음 (98년에 큰 폭으로 증가)
 50대 : 비소비지출 비중 높음
 60대 이상 :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거비, 보건비 비중 높음
 음식숙박, 오락문화 상대적으로 비중 낮음

1990

1998

2008

2018

- 전 연령대에서....
 - 비소비지출, 음식숙박 비중 증가 (20-50대 비소비지출 1순위)
 - 식료품·비주류음료 비중 감소
 - 지출비중 상위 5개 품목에 의류신발 대신 음식·숙박 포함
- 20대, 30대, 50대 지출비중 상위 5개 교통비 새롭게 포함
- 40대 교육비 큰 폭 증가 (2.8%p)

- 전 연령대에서....
 - 음식숙박 비중 증가 (순위 상승) (20,30대 2순위)
 - 식료품·비주류음료 비중 감소
- 40대 교육비 한 번 더 큰 폭 증가(2.4%p)

- 전 연령대에서....
 - 식료품·비주류음료 비중 감소
- 60대 이상도 식료품·비주류음료 보다 비소비지출 비중 높음
- 20대 음식숙박 비중 1순위
- 40대 교육비 비중 감소(5.1%p)
 - 지출 비중 90년과 유사

한국FP
학회

“요즘 젊은이, 옛날 젊은이”

시대적 효과(year 효과)
 (다른 연도의 동일 연령대 비교)

- 시대에 따라 같은 연령대의 소비패턴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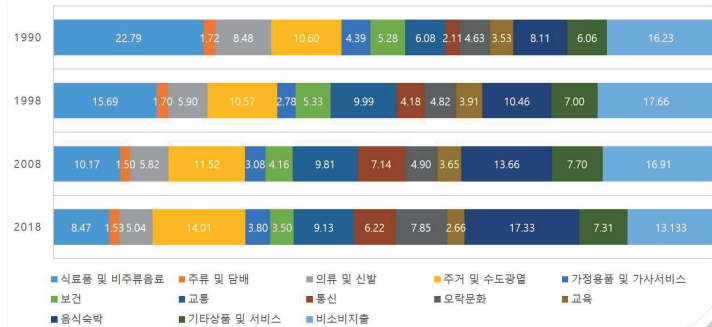
	1990년	1998년	2008년	2018년
60대 이상				
50대				
40대				
30대				
20대				

20대

- 1990년 식료품비 비중 높음
- 1998년 교통비 증가 시작
- 2008년 식료품비 감소, 통신비 증가, 음식숙박 증가
- 2018년 주거비, 음식숙박, 비소비지출 감소
- 4개 연도 지속적으로...
 - 식료품·비주류음료비 비중 감소
 - 음식숙박비 비중 증가
- 1990년→1998년...
 - 교통비 비중 증가폭 큼(6.1%→10.0%)
 - 의류·신발비 비중의 감소폭 큼(8.5%→5.9%)
- 90년 이후 08년까지 통신비 비중 증가 (2.1%→4.2%→7.1%)
- 98년 이후 주거·수도광열비 비중 증가
 - 1998년→2018년에 상대적으로 큰 폭 증가 (10.6%→11.5%→ 14.0%)
- 보건의료비 90년대 후반 이후 점차 감소 (5.3%→4.2%→3.5%)
- 비소비지출 98년 이후 감소 (17.7%→16.9%→13.1%)

20대의 지출비중 비교

(가계지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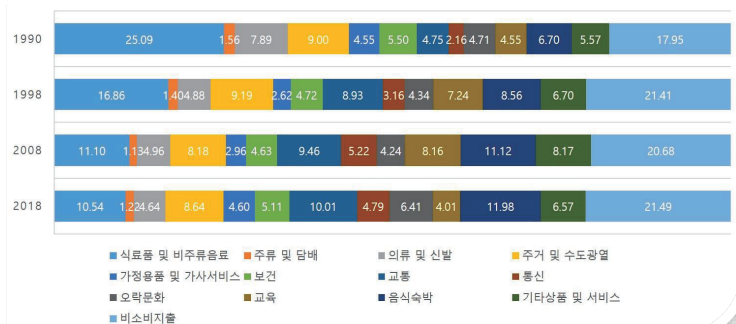
1990년	1998년	2008년	2018년
식료품비주류음료 > 비소비지출 > 주거수도광열 > 의류신발 > 음식숙박	비소비지출 > 식료품비주류음료 > 주거수도광열 > 음식숙박 > 교통	비소비지출 > 음식숙박 > 주거수도광열 > 식료품비주류음료 > 교통	음식숙박 > 주거수도광열 > 비소비지출 > 교통 > 식료품비주류음료

30대

- 1990년 식료품
- 1998년 교통비 증가, 비소비지출 증가
- 2008년 식료품비, 감소, 교통, 교육, 음식숙박
- 2018년 교통, 오락문화, 음식숙박
- 지출항목 중 비소비지출의 비중 1998년 이후 계속 1순위
- 4개연도 지속적으로...
 - 식료품·비주류음료비 비중 감소, 특히 1990→1998년에 큰 폭으로 감소
 - 음식숙박비 증가
 - 교통비 증가, 특히 1990년→1998년에 증가폭 큼
- 2008년까지 교육비 비중 크게 증가 후 2018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
 - 4.6%→7.2%→8.2%→4.0%

30대의 지출비중 비교

(가계지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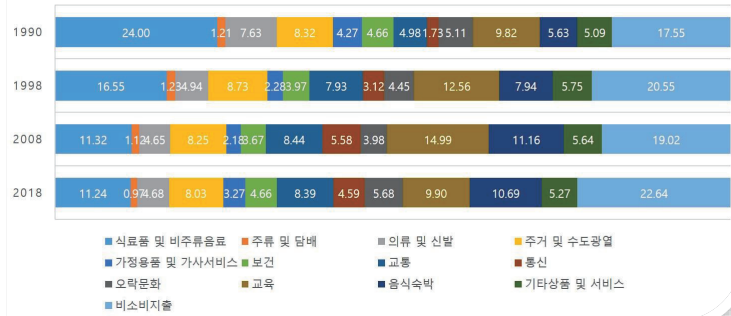
1990년	1998년	2008년	2018년
식료품비주류음료 > 비소비지출 > 주거수도광열 > 의류신발 > 음식숙박	비소비지출 > 식료품비주류음료 > 주거수도광열 > 교통 > 음식숙박	비소비지출 > 음식숙박 > 식료품비주류음료 > 교통 > 주거수도광열	비소비지출 > 음식숙박 > 식료품비주류음료 > 교통 > 주거수도광열

40대

- 1990년 식료품비, 비소비지출, 의료 신발
- 1998년 교육, 비소비, 교통, 음식숙박
- 2008년 교육, 교통, 음식숙박
- 2018년 교육비 감소, 비소비증가, 가정가사서비스 증가
- 1998년 이후로 지출항목 중 비소비지출의 비중이 가장 큼
 - 특히 1998년과 2018년에 비소비지출 비중 증가
- 식료품·비주류음료비 비중 4개연도 지속적으로 감소
- 음식숙박비, 교통비, 통신비 비중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8년에는 다소 감소
- 다른 연령대에 비해 교육비 비중 큼
 - 2008년까지 증가하다가 2018년에 교육비 비중 큰 폭으로 감소

40대의 지출비중 비교

(가계지출 기준)



1990년	1998년	2008년	2018년
식료품·비주류음료 > 비소비지출 > 교육 > 주거·수도광열 > 의료·신발	비소비지출 > 식료품·비주류음료 > 교육 > 주거·수도광열 > 음식숙박	비소비지출 > 교육 > 식료품·비주류음료 > 음식숙박 > 교통	비소비지출 > 식료품·비주류음료 > 음식숙박 > 교육 > 교통

50대

- 1990년 식료품비, 비소비지출
- 1998년 교통비 증가, 비소비지출증가
- 2008년 통신비 증가, 음식숙박, 비소비지출
- 2018년 비소비지출, 교통, 음식숙박
- 1998년 이후로 지출항목 중 비소비지출의 비중이 가장 큼
-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소비지출의 비중이 큼
 - 특히 1998년과 2018년에 비소비지출 비중 증가
- 식료품·비주류음료비 비중 4개연도 지속적으로 감소
- 교육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특히 08→18년 다른 연도에 비해 큰 감소(6.9%→5.3%)
- 음식숙박비, 교통비, 통신비 비중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8년에는 다소 감소
- 통신비 증가폭이 20대 다음으로 큼(1.9%→5.2%)

50대의 지출비중 비교

(가계지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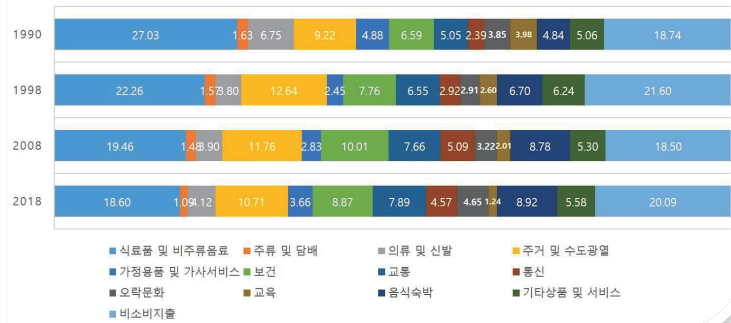
1990년	1998년	2008년	2018년
식료품·비주류음료 > 비소비지출 > 주거·수도광열 > 의료·신발 > 교육	비소비지출 > 식료품·비주류음료 > 교통 > 음식숙박 > 주거·수도광열	비소비지출 > 식료품·비주류음료 > 음식숙박 > 교통 > 주거·수도광열	비소비지출 > 식료품·비주류음료 > 음식숙박 > 교통 > 주거·수도광열

60대

- 1990년 식료품비, 비소비지출
- 1998년 식료품비, 주거비, 보건, 비소비증가
- 2008년 식료품비감소, 주거비, 보건증가. 통신증가, 음식숙박 증가
- 2018년 식료품비감소, 비소비지출 중요, 주거, 보건, 통신, 음식숙박
- 다른 연령대와 다르게, 2008년까지 식료품·비주류음료비 비중이 가장 큼.
- 2018년에 비소비지출 비중이 가장 커짐
 - 전반적으로 20-30대 보다 60대의 비소비지출 비중이 큼
 - 2018년 기준, 20대와 60대 이상의 가계지출액은 비슷 한데(약 300만원), 60대의 비소비지출액이 큼 (20대 46 만원, 60대 71만원)
- 다른 연령대에 비해 보건비 비중이 큼
 -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2008년, 6.59%-->10.01%), 2018년에는 감소
- 4개 연도 지속적으로...
 - 식료품·비주류음료비 비중 감소
 - 음식숙박비, 교통비 비중
- 주거광열비 증가, 특히 1998년
- 오락문화비 큰 변화 없음(3.85%-->4.65%)
- 교육비 계속 감소(4.0%→2.6%→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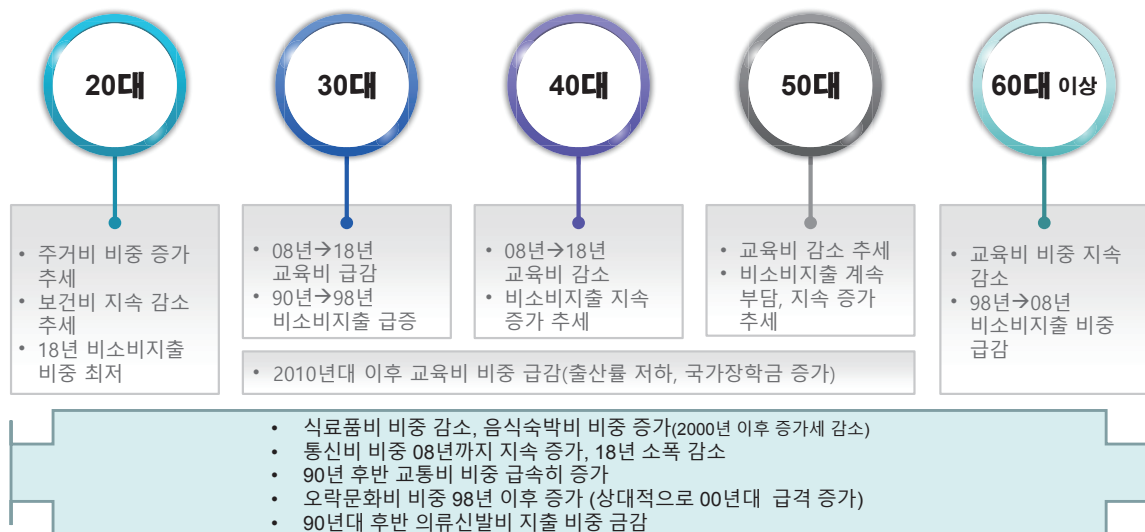
60대 이상의 지출비중 비교

(가계지출 기준)



1990년	1998년	2008년	2018년
식료품·비주류음료 > 비소비지출 > 주거·수도광열 > 의료·신발 > 보건	식료품·비주류음료 > 비소비지출 > 주거·수도광열 > 보건 > 음식숙박	식료품·비주류음료 > 비소비지출 > 주거·수도광열 > 보건 > 음식숙박	비소비지출 > 식료품·비주류음료 > 주거·수도광열 > 음식숙박 > 보건

시대변화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변화



“나이가 들어가면서” 코호트 추적

- 현재 은퇴를 한 60대 이상 소비자들은 어떤 소비생활을 해왔나?
- 1990년 활발한 경제활동을 한 3,40대 (1940년대 생, 1950년대 생)
- 은퇴를 목전에 두고 있는 50대 소비자들, 어떤 소비생활을 해왔나?
- 1990년 경제활동을 시작한 20대 (1960년대 생)
- 현재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40대 소비자들은?
- 1990년 경제 활동을 준비했던 1998년의 20대 (1970년대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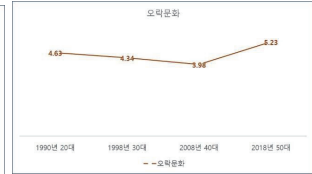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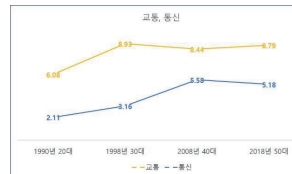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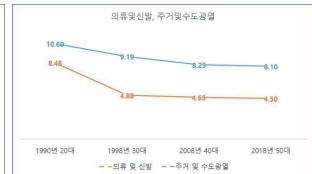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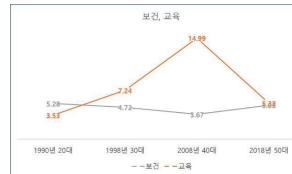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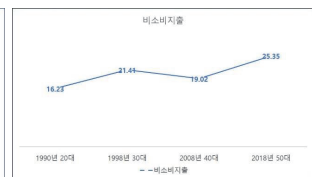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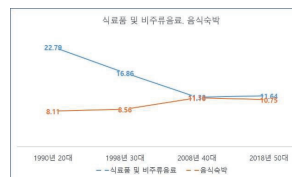
	1990년	1998년	2008년	2018년
60대 이상				
50대				
40대				
30대				
20대				

1960년대에 태어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대 (1990년 20대)

	1990년	1998년	2008년	2018년
생후년				
50대				
40대				
30대				
20대				

연령대 증가에 따른 비목별 지출 비중 변화

-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지출 비중: 40대(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 음식숙박 지출 비중: 40대(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 비소비지출 비중: 30대에 증가, 40대에 다소 감소, 50대에 크게 증가. 30대 이후로 지출 비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교육비 지출 비중: 40대까지 증가 (40대 피크) 이후 감소
- 의류신발 지출 비중: 30대에 큰폭으로 감소 이후 비슷한 수준 유지
- 교통비 비중: 30대에 큰 폭으로 증가 이후 비슷한 수준 유지
- 통신비 비중: 40대까지 증가 이후 감소세





1960년대에 태어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대 (1990년 20대)

연령대 증가에 따른 지출비중 상위 5개 품목 변화

- 20대 비소비지출과 의식주 중심
- 30대 의생활 소비 감소
- 40대에는 교육비 비중 증가
식생활(내식, 외식)과 교통비 중심
- 50대에는 비소비지출과 식생활(내식, 외식), 교통비 비중 중심, 주거비 비중 5순위 내 포함

	1990년	1998년	2008년	2018년
60대 이상				
50대				1. 비소비지출 2. 식료품·비주류음료 3. 음식숙박 4. 교통 5. 주거·수도광열
40대			1. 비소비지출 2. 교육 3. 식료품·비주류음료 4. 음식숙박 5. 교통	
30대		1. 비소비지출 2. 식료품·비주류음료 3. 주거·수도광열 4. 교통 5. 음식숙박		
20대	1. 식료품·비주류음료 2. 비소비지출 3. 주거·수도광열 4. 의류·신발 5. 음식숙박			



1950년대에 태어나 은퇴생활을 시작한 60대 (1990년 30대)

	1990년	1998년	2008년	2018년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연령대 증가에 따른 비목별 지출 비중 변화

-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지출 비중: 60대(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 음식숙박 지출 비중: 60대(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 비소비지출 비중: 50대까지 지속 증가, 60대 소폭 감소 증가. 30대 이후로 지출 비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교육비 지출 비중: 40대까지 증가 (40대 피크) 이후 급격히 감소, 18년에는 1.2%
- 의류신발 지출 비중: 30대에 큰폭으로 감소 이후 비슷한 수준 유지
- 주거·수도·광열비 비중: 50대까지 유사, 60대에 비중 증가
- 교통비, 통신비 비중: 40대, 50대까지 대폭 증가, 이후 소폭 감소
- 통신비 비중: 40대→50대에 급격 증가, 이후 감소
- 보건비 비중: 40대까지 감소 후 60대까지 증가, 특히 60대에 비중 가장 높음





1950년대에 태어나 은퇴생활을 시작한 60대 (1990년 30대)

연령대 증가에 따른 지출 구성비 변화

- 30대에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 비소비지출 > 주거광열수도비 > 의류신발 > 음식숙박
- 40대부터 비소비지출이 1순위로 변경
 - 의류신발 대신 교육비 순위 포함
 - 비소비지출 > 음식숙박 >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 50대에는 교육비 빠지고 교통비 비중이 순위에 포함
 - 비소비지출 >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 음식숙박 > 교통
- 60대 이상은 보건비 비중이 높아짐

	1990년	1998년	2008년	2018년
60대 이상				1. 비소비지출 2. 식료품·비주류음료 3. 주거·수도·광열 4. 음식숙박 5. 보건
50대			1. 비소비지출 2. 식료품·비주류음료 3. 음식숙박 4. 교통 5. 주거·수도·광열	
40대		1. 비소비지출 2. 식료품·비주류음료 3. 교육 4. 주거·수도·광열 5. 음식숙박		
30대	1. 식료품·비주류음료 2. 비소비지출 3. 주거·수도·광열 4. 의류·신발 5. 음식숙박			
2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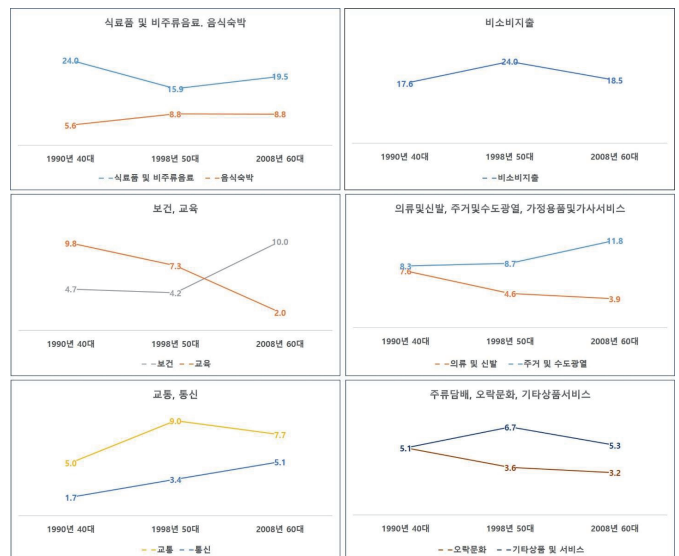


1940년대에 태어나 은퇴생활을 하고 있는 고령자 (1990년 40대)

	1990년	1998년	2008년	2018년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연령대 증가에 따른 비목별 지출 비중 변화

-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지출 비중: 50대(1998년)까지 감소, 60대(2008년)에 증가
- 음식숙박 지출 비중: 50대(2008년)에 큰 폭 증가 이후 변화 없음
- 비소비지출 비중: 50대까지 증가 후 60대에 감소
- 교육비 지출 비중: 50대(1998년)에 감소, 60대(2008년)에 급격히 감소
- 보건비 비중: 60대에 급격히 증가
- 의류신발 지출 비중: 60대까지 감소추세
- 주거·수도·광열비 비중: 60대에 큰 폭으로 증가
- 교통비 비중: 50대까지 크게 변화, 이후 약간 감소
- 통신비 비중: 50대, 60대 까지 지속 증가





1940년대에 태어나 은퇴생활을 하고 있는 고령자 (1990년 40대)

연령대 증가에 따른 지출 구성비 변화

- 40대에는 의식주 중심 생활, 교육비 부담 높음
-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 비소비지출 > 교육 > 주거광열수도비 > 의류, 신발
- 50대에는 의류비 지출비중 줄이고 음식숙박 비중 높임
- 비소비지출 >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 교통 > 음식숙박
- 60대에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 비소비지출 > 주거수도광열 > 보건 > 음식숙박

	1990년	1998년	2008년	2018년
60대 이상			1. 식료품·비주류음료 2. 비소비지출 3. 주거·수도·광열 4. 보건 5. 음식숙박	
50대		1. 비소비지출 2. 식료품·비주류음료 3. 교통 4. 음식숙박 5. 주거·수도·광열		
40대	1. 식료품·비주류음료 2. 비소비지출 3. 교육 4. 주거·수도·광열 5. 의류·신발			
30대				
2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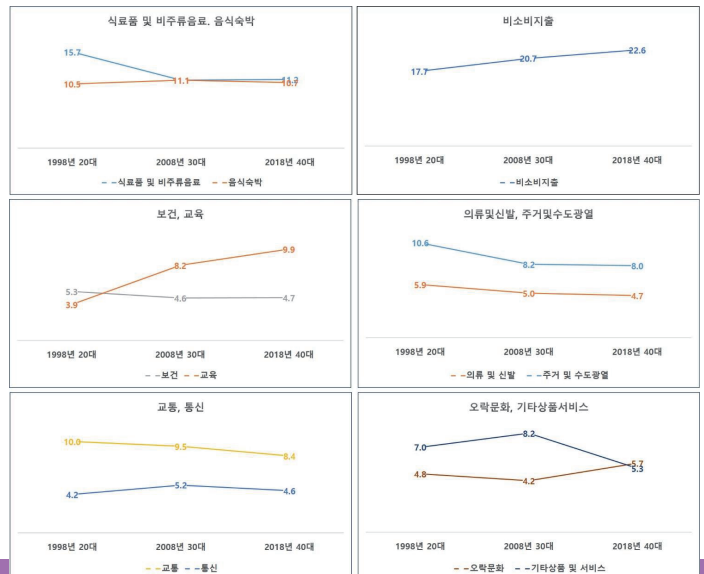


1970년대에 태어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40대 (1998년 20대)

	1998년	1998년	2008년	2018년
생년월일				
50대				
40대				
30대				
20대				

연령대 증가에 따른 비목별 지출 비중 변화

-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지출 비중: 30대(2008년)까지 감소, 40대(2018년)에 큰 변화 없음
- 음식숙박 지출 비중: 30대(2008년), 40대(2018년)에 큰 변화 없음
- 비소비지출 비중: 30대, 40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 교육비 지출 비중: 30대(2008년)에 급격히 증가, 40대(2018)에도 지속적으로 증가
- 의류신발 지출 비중: 큰 변화 없음
- 주거수도광열비 비중: 30대에 소폭 감소
- 교통비 비중: 30대, 40대까지 큰 변화 없음
- 통신비 비중: 40대까지 약간 증가, 이후 약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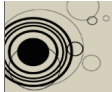


1970년대에 태어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40대 (1998년 20대)

연령대 증가에 따른 지출 구성비 변화

- 20대 이후 비소비지출이 가장 높은 지출비중
- 20대에는 비소비지출 >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 주거광열수도비 > 음식숙박 > 교통
- 30대에는 음식숙박비 비중이 2순위 비중으로 올라옴
 - 비소비지출 > 음식숙박 >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 교통 > 주거수도광열
- 40대에 주거수도광열비 비중 5순위에 들지 않음. 교육비 비중 증가
 - 비소비지출 >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 음식숙박 > 교육 > 교통

	1990년	1998년	2008년	2018년
60대 이상				
50대				
40대				1. 비소비지출 2. 식료품·비주류음료 3. 음식숙박 4. 교육 5. 교통
30대			1. 비소비지출 2. 음식숙박 3. 식료품·비주류음료 4. 교통 5. 주거·수도광열	
20대		1. 비소비지출 2. 식료품·비주류음료 3. 주거·수도광열 4. 음식숙박 5. 교통		



주요결과 요약

(1) 교통비 변화(증가)

1990년 20대: 1998년에 교통비 크게 증가
그러나 다른 코호트의 경우 교통비 변화가 크게 눈에 띄지 않음.
==> 1998년에 라이프스타일 변화가 교통비 증가를 설명함.

(2) 통신비 변화(증가)

모든 코호트에서 2008년에 통신비 비중이 가장 컸다가 2018년에 감소하는 추세임.
==> 통신비 증가는 2008년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설명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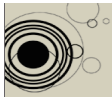
(3) 교육비 변화

교육비의 경우 생애주기 효과만 고려한다면 40대에 정점을 찍고, 50대에 급감하는 형태여야 함.

1990년 코호트의 경우 이러한 추세를 보임.

1998년 코호트의 경우에는 생애주기 효과를 반영하여 계속 증가하여 40대(2018년)에 정점을 찍음. 그러나 2018년 증가폭은 1990년도 코호트에 비하여 매우 적음. 이는 저출산과 교육비 정책 등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교육비 변화 중 2018년 교육비 감소는 라이프스타일 효과로 설명 가능함.



주요결과 요약

(4) 음식숙박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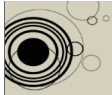
모든 코호트에서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음식숙박비는 감소하는 추세임.
그러나 1990년 코호트의 경우 2008년에 40대임에도 불구하고 음식숙박비가 크게 증가함.
==>2008년의 라이프스타일 변화가 음식숙박비 증가를 설명할 수 있음.

(5) 오락문화비

오락문화비는 모든 코호트에서 2018년에 높게 나타남.
==> 2018년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설명 가능함.

(6) 식비

1990년 코호트의 식비 변화를 보면 30대(1998년)에서 40대(2008)년의 하락폭이 큼.
그러나 1998년 코호트의 경우 30대에서 40대에 식비 변화가 크지 않음. 2008년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1990년 코호트의 식비가 크게 감소하였다고 설명할 수 있음.
2008년 역시 20대에서 30대로의 생애주기 이동에 따른 식비 감소가 나타나지 않음. 이 역시 2008년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2008년 20대의 식비가 이미 감소한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음.



(요약) 연도별·연령대별 지출비중 상위 5개 비목

	1990년	1998년	2008년	2018년
60대 이상	1. 식료품·비주류음료 2. 비소비지출 3. 주거·수도광열 4. 의류·신발 5. 보건	1. 식료품·비주류음료 2. 비소비지출 3. 주거·수도광열 4. 보건 5. 음식숙박	1. 식료품·비주류음료 2. 비소비지출 3. 주거·수도광열 4. 보건 5. 음식숙박	1. 비소비지출 2. 식료품·비주류음료 3. 주거·수도광열 4. 음식숙박 5. 보건
50대	1. 식료품·비주류음료 2. 비소비지출 3. 주거·수도광열 4. 의류·신발 5. 교육	1. 비소비지출 2. 식료품·비주류음료 3. 교통 4. 음식숙박 5. 주거·수도광열	1. 비소비지출 2. 식료품·비주류음료 3. 음식숙박 4. 교통 5. 주거·수도광열	1. 비소비지출 2. 식료품·비주류음료 3. 음식숙박 4. 교통 5. 주거·수도광열
40대	1. 식료품·비주류음료 2. 비소비지출 3. 교육 4. 주거·수도광열 5. 의류·신발	1. 비소비지출 2. 식료품·비주류음료 3. 교육 4. 주거·수도광열 5. 음식숙박	1. 비소비지출 2. 교육 3. 식료품·비주류음료 4. 음식숙박 5. 교통	1. 비소비지출 2. 식료품·비주류음료 3. 음식숙박 4. 교육 5. 교통
30대	1. 식료품·비주류음료 2. 비소비지출 3. 주거·수도광열 4. 의류·신발 5. 음식숙박	1. 비소비지출 2. 식료품·비주류음료 3. 주거·수도광열 4. 교통 5. 음식숙박	1. 비소비지출 2. 음식숙박 3. 식료품·비주류음료 4. 교통 5. 주거·수도광열	1. 비소비지출 2. 음식숙박 3. 식료품·비주류음료 4. 교통 5. 주거·수도광열
20대	1. 식료품·비주류음료 2. 비소비지출 3. 주거·수도광열 4. 의류·신발 5. 음식숙박	1. 비소비지출 2. 식료품·비주류음료 3. 주거·수도광열 4. 음식숙박 5. 교통	1. 비소비지출 2. 음식숙박 3. 주거·수도광열 4. 식료품·비주류음료 5. 교통	1. 음식숙박 2. 주거·수도광열 3. 비소비지출 4. 교통 5. 식료품·비주류음료

■ Session 2-1

학술논문발표

- **IPA기법을 활용한 소비자 집단별 금융교육 내용의 분석 및 제안**
/ 손지연(한국소비자원), 박주영(충남대)
- **X세대와 밀레니얼세대의 금융상품보유행태 비교**
/ 주소현(이화여대), 유명수(이화여대), 고은희(이화여대)
- **자가주택을 활용한 노후소득마련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 최경진(한국주택금융공사), 임병권(한국주택금융공사)
- **소비자의 투자자문서비스 만족과 전환의도에 관한 연구**
/ 김지현(서울대), 손지연(한국소비자원)

한국FP학회 2019년 동계 학술대회

IPA기법을 활용한 소비자집단별 금융교육 내용의 분석 및 제안

손지연 · 박주영
한국소비자원 · 충남대학교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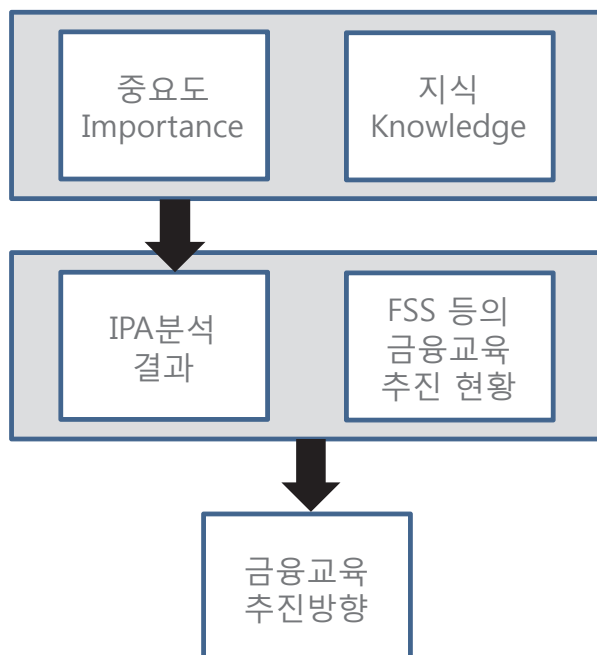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흐름도

1.1 연구의 배경

- **금융교육 프로그램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며, 내용과 목적이 다양함**
 - 한국은행 경제교육 콘텐츠: 일반성인용/청소년용/어린이용으로 구분
 -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4050 학부모, 은퇴자
 - 대학생: 학자금 대출; 직장인: 주택 구입, 은퇴 준비
- **대상에 따라 차별화된 내용을 제공하는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역량 분석이 필요**
 - 예를 들어, 김미리·김시월(2011)은 대학생 소비자의 금융이해력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이해력이 낮은 영역(예: 화폐관리의 이해)의 금융교육 내용 보강을 제안함
 - 단, 이 연구는 연구대상이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음
- **본 연구의 목표**
 - IPA기법을 활용하여, 금융교육의 대상집단(일반 성인, 고령자)별로 우선순위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국내 주요 기관이 추진 중인 금융교육의 방향성을 논의함

1.2 연구의 흐름도



[연구문제 1] 전문가 집단이 평가한 금융교육 영역별 중요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 일반성인/고령자 비교

[연구문제 2] 전문가 직군에 따른 금융교육 영역별 중요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 교수/CFP/공무원 비교

[연구문제 3] 내용영역별 중요도 평가 결과와 소비자지식 간의 차이는 어떠한가? (IPA 분석)

[연구문제 4] IPA분석 결과를 국내 주요기관의 금융교육 추진 현황에 적용하여 진단한 결과는 어떠한가?

II. 선행연구 고찰

2.1 IPA기법의 사용

2.2 직군별 인식차이

2.3 중영역 내용체계의 수립

2.1 IPA 기법의 사용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
- 중요도-성취도 분석
- 중요도 대비 성과가 낮은 요소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는 논리에 기반함(Martilla and James, 1977)

← 중요도 →

↑ 내 차 도 ↓		Low Importance	High Importance
	High Performance	과잉노력 지양 Possible overkill	지속 유지 keep up the good work
	Low Performance	점진 개선 Low priority	중점 개선 Concentrate here

• 타 분야 IPA 기법의 활용 사례

- IPA를 활용한 경찰교육훈련 개선방안: 경찰수사연수원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최정윤, 주성빈, 2019)
- IPA를 활용한 대학생 진로교육 요구도 분석(김지효, 이정은, 2016)

2.2 전문가 집단의 직군별 인식 차이

- 본 연구는 대상별 금융교육 내용에서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덜 중요한가에 대한 현장 전문가와 연구전문가의 인식 차이에 주목함
- 전문직에 대한 분류(Elliot, 1972)

분류	직업	특징
지위전문직 (status professional)	교수, 변호사, 성직자	높은 사회적 지위 학문적·이론적 전문성
직업전문직 (occupational professional)	기술자, 기자, 회계사	직업으로서의 전문성 행위중심 임금 목적의 전문성

- 금융교육 내용체계 및 콘텐츠 개발은 주로 학계에서 담당하는 반면, 금융교육 실제 추진은 관련 기관에서 담당함
 - 연구전문가(researcher)와 현장전문가(field expert)의
맞춤형 금융교육 관련 인식차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이 논의는 향후 집단별 맞춤형 금융교육의 대대적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형성의 밑바탕이 될 수 있음

2.3 중영역 내용체계의 수립



FGI

(2019. 5. 17.)

KCA 서울지원

- 소비자단체 3인
- 대학교수 3인
- 연구기관 1인
- KCA 3인 등 참여

서면자문

(2019. 6. 30.~7. 1.)

자유기술식

- 참가자
- 대학교수 4인 참여

<금융교육 중영역의 내용체계>

- [1]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
- [2] 금융소비자정보의 탐색과 활용
- [3] 금융소비자피해예방
- [4] 현금관리와 재무상태
- [5] 저축과 투자
- [6] 연금과 은퇴설계
- [7] 소비자금융과 신용
- [8] 위험과 보험

Ⅲ. 연구방법

3.1 자료의 수집 절차

3.2 전문가조사 응답자의 특성

3.3 소비자역량 조사 응답자의 특성

3.4 소비자지식의 측정 문항

3.1 자료의 수집 절차

- **[중요도]** 전문가 조사를 통한 내용영역별 중요도 평가
 - 조사기간: 2019년 7월-8월
 - 표집방법: 편의표집
 - 소비자학과 교수 15인, CFP 19인, 공무원 11인 등 **총 45명**
 - 특성: 박사학위 소지자 51%, 재직기간 10년 이상 73%
- **[지식]** “2018 소비자역량지수” by 한국소비자원
 - 조사기간: 2018년 7월-8월
 - 전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남녀 소비자 **2,000명**
 -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표본 추출
 - 표본 오차: 95% ± 2.19%p

3.2 전문가조사 응답자의 특성

		교수	CFP	공공기관	계
성별	남성	0 (0.0)	16 (84.2)	2 (18.2)	18 (40.0)
	여성	15 (100.0)	3 (15.8)	9 (81.8)	27 (60.0)
연령	30대	1 (6.7)	3 (15.8)	1 (9.1)	5 (11.1)
	40대	8 (53.3)	12 (63.2)	6 (54.5)	26 (57.8)
	50대	5 (33.3)	3 (15.8)	4 (36.4)	12 (26.7)
	60대	1 (6.7)	1 (5.3)	0 (0.0)	2 (4.4)
학력	학사	0 (0.0)	5 (26.3)	1 (9.1)	6 (13.3)
	석사	0 (0.0)	10 (52.6)	6 (54.5)	16 (35.6)
	박사	15 (100.0)	4 (21.1)	4 (36.4)	23 (51.1)
업무기간	5년 미만	1 (6.7)	1 (5.3)	2 (18.2)	4 (8.9)
	5년 이상 10년 미만	1 (6.7)	4 (21.1)	3 (27.3)	8 (17.8)
	10년 이상 15년 미만	7 (46.7)	6 (31.6)	2 (18.2)	15 (33.3)
	15년 이상 20년 미만	1 (6.7)	7 (36.8)	2 (18.2)	10 (22.2)
	20년 이상	5 (33.3)	1 (5.3)	2 (18.2)	8 (17.8)
계		15 (100.0)	19 (100.0)	11 (100.0)	45 (100.0)

3.3 소비자역량 조사 응답자의 특성

- 고령자 집단의 경우, 일반 성인에 비해 여성 비중이 높고, 소득이 낮은 특성

변수	항목	일반 성인 (n= 1,641)		65세 이상 고령자 (n=359)	
		빈도	%	빈도	%
성별	남성	836	50.9	153	42.6
	여성	805	49.1	206	57.4
학력	고졸 이하	594	36.2	324	90.3
	전문대	327	19.9	9	2.5
	대학	696	42.4	25	7.0
	대학원 이상	24	1.5	1	0.3
혼인 상태	미혼	403	24.6	3	0.8
	기혼	1194	72.8	297	82.7
	기타(이혼, 사별 등)	44	2.7	59	16.4
소득 구간	150만원 미만	31	1.9	75	20.9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19	19.4	172	47.9
	300만원 이상~450만원 미만	625	38.1	73	20.3
	45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451	27.5	28	7.8
	600만원 이상~750만원 미만	171	10.4	8	2.2
	750만원 이상	44	2.7	3	0.8

3.4 소비자지식의 측정 문항(1)

중영역	내용요소	지식 측정용 문항
[1] 시장경제의 기본원리	인플레이션, 환율	- 높은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인플레이션 이전과 동일 제품을 구매할 때 더 많은 비용이 든다. (○)
[2] 금융소비자정보의 탐색과 활용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이용, 금융 허위과장 광고 판단, 비대면 금융상품 및 온라인뱅킹 이용	- 공공장소 및 여럿이 함께 사용하는 컴퓨터에서는 온라인 쇼핑이나 전자금융거래를 하지 말아야 한다. (○)
[3]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불완전판매, 보이сп핑, 유사투자자문, 유사수신행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은행, 증권 등 금융상품업자는 금융상품에 대해 투자자에게 설명의무를 가진다. (○)
[4] 현금관리와 재무상태	생애주기별 소득과 지출의 변화	- 가구주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재무목표가 달라지면 재무설계안 또한 달라진다. (○)

3.4 소비자지식의 측정 문항(2)

중영역	내용요소	지식 문항
[5] 저축과 투자	이자율, 분산투자	- 100만원을 연이율 2%(복리)의 비과세 저축성 예금에 5년 동안 저축해둔다면, 5년 후에는 동 계좌에 110만원이 있을 것이다. (X)
[6] 연금과 은퇴설계	은퇴후 필요자금 산정, 역모기지, 연금 이율과 수수료	- 은퇴기 소득은 예상되는 각종 연금과 저축액 및 부동산 수익 등을 모두 더하여 구한다. (○)
[7] 소비자금융과 신용	대출 이용시 주의사항	-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별도의 통보절차 없이 바로 연체정보가 등록된다. (○)
[8] 위험과 보험	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 여러 회사의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 대상 의료비가 발생하면 각 회사별로 가입한 보험금액에 비례하여 보상받는다. (○)

IV. 연구결과

4.1 중요도 평가 결과 (전문가조사)

4.2 금융지식 평가 결과 (소비자역량조사)

4.3 일반 성인 IPA

4.4 고령자 IPA

4.5 금융교육 추진 현황 기반의 방향성 논의

4.1 중요도 평가 결과 (일반 성인 대상 금융교육, 5점 만점)

- 전문가 집단의 직군별 의견이 대체로 불일치하는 경향성을 보임
- 중요도를 높게 평가한 중영역이 직군별로 다르게 나타남

내용체계 \ 전문가	ANOVA	교수 (n=15)			CFP (n=19)			공무원/공공기관 (n=11)		
	F-test	M(SD)	순위		M(SD)	순위		M(SD)	순위	
시장경제의 기본원리	0.568	3.53 (1.25)	8		3.16 (1.02)	7		3.27 (0.65)	8	
금융소비자정보의 탐색과 활용	4.023	4.13 (0.99)	7		3.11 (1.05)	8		3.55 (1.13)	7	
금융소비자 피해예방	10.113***	4.40 (0.83)	6		3.42 (0.77)	6		4.55 (0.69)	1	
현금관리와 재무상태	3.249*	4.53 (0.64)	4		4.26 (0.73)	1		3.82 (0.75)	6(5)	
저축과 투자	8.245**	4.73 (0.46)	2		4.21 (0.86)	2		3.55 (0.82)	5(6)	
연금과 은퇴설계	5.384**	4.80 (0.41)	1		4.00 (0.88)	3(4)		3.91 (1.04)	4	
소비자금융과 신용	6.77**	4.67 (0.49)	3		3.89 (0.46)	5		4.09 (0.94)	2(3)	
위험과 보험	1.969	4.47 (0.74)	5		4.00 (0.75)	4(3)		4.09 (0.54)	3(2)	

4.1 중요도 평가 결과 (고령자 대상 금융교육, 5점 만점)

- 전문가 집단의 직군별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성을 보임
- 단, "[2]금융소비자정보탐색과 활용" 영역의 중요도에 대한 의견 제외

내용체계	전문가	ANOVA	교수 N=15	CFP N=19	공기관 N=11
			M(SD) 순위	M(SD) 순위	M(SD) 순위
[1] 시장경제의 기본원리		2.046	3.33 (1.23) 8	2.63 (1.07) 8	2.64 (0.92) 8
[2] 금융소비자정보의 탐색과 활용		6.356**	4.27 (0.88) 3	3.00 (1.16) 7	3.36 (1.03) 3(4)
[3] 금융소비자 피해예방		3.157	4.93 (0.26) 1	4.37 (0.76) 1	4.55 (0.82) 1
[4] 현금관리와 재무상태		1.421	4.07 (0.80) 4	3.47 (1.50) 3	3.27 (1.42) 5(6)
[5] 저축과 투자		1.518	3.73 (0.70) 7	3.11 (1.37) 6	3.18 (0.98) 7
[6] 연금과 은퇴설계		.603	4.33 (0.90) 2	3.95 (1.27) 2	4.27 (1.01) 2
[7] 소비자금융과 신용		1.480	3.93 (0.80) 5	3.42 (1.22) 4	3.27 (1.10) 6(5)
[8] 위험과 보험		2.189	3.93 (0.80) 6	3.26 (0.93) 5	3.36 (1.21) 4(3)

4.1 중요도 평가 결과 (요약)

- 연구전문가 집단이 현장전문가 집단에 비해 금융교육의 중요도를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함
-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의 직군에 따라 일반인 대상 금융교육에 대한 내용 중요도 평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 직군에 따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 상이함
- 고령자 대상 금융교육에 대한 내용 중요도 평가는 전문가 직군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음
 - [2]영역을 제외하면 의견이 대체로 일치함

	교수			CFP			공무원		
	N	M	SD	N	M	SD	N	M	SD
일반인	15	4.41	0.49	19	3.76	0.46	11	3.85	0.50
고령자	15	4.07	0.51	19	3.40	0.72	11	3.49	0.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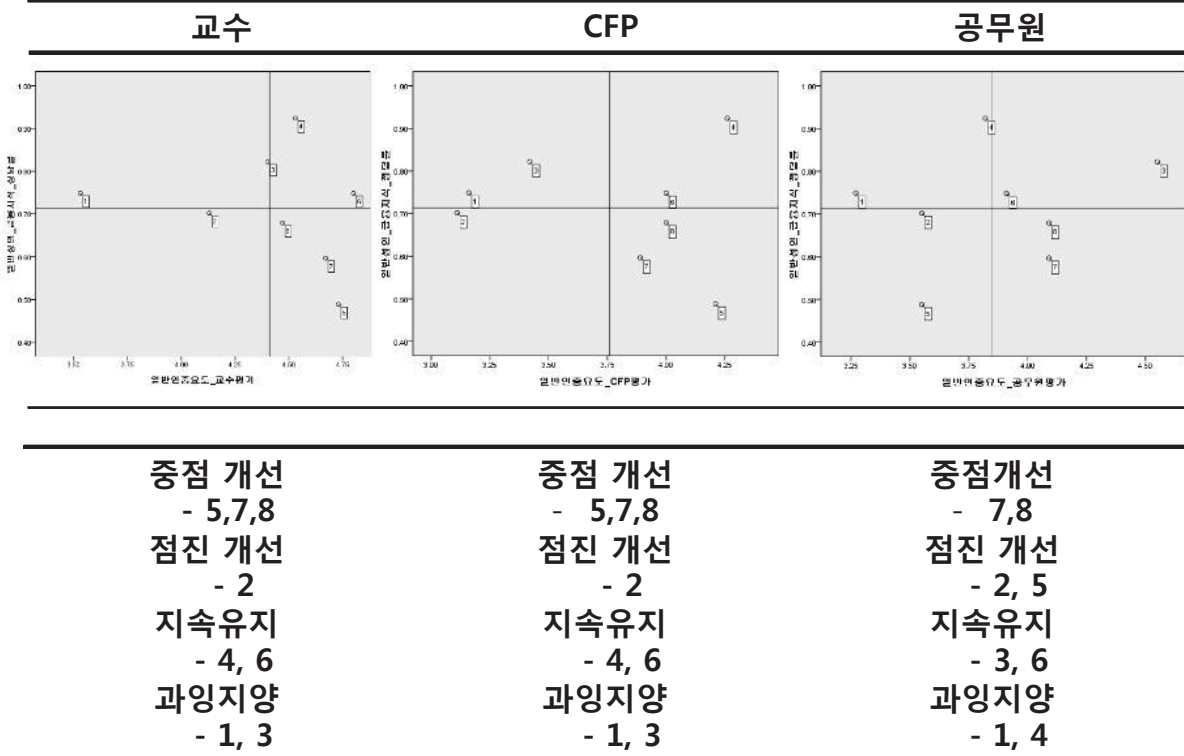
- 일반인 중요도 대상 F test 결과: $F=8.443^{**}$
- 고령자 중요도 대상 F test 결과: $F=4.235^{*}$

4.2 금융지식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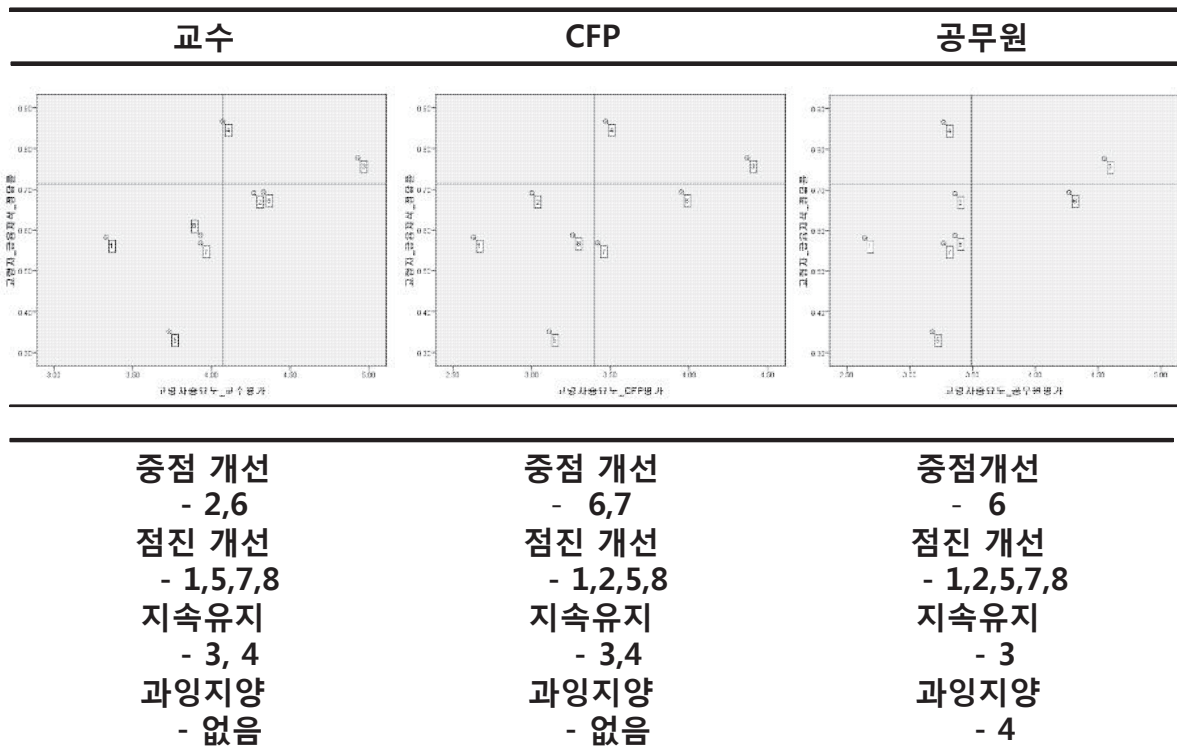
- 평균 정답률은 일반 성인 71%, 고령자 64%임
- [5]저축과 투자 영역의 **이자율 계산 문제**에 대한 정답률이 가장 낮으며, [7]신용, [8]보험 영역도 낮은 편임
- 일반 성인과 고령자 집단 사이의 금융 지식 수준 차이는 [1]시장경제의 기본원리 영역의 **인플레이션** 문제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

	일반 성인 (n=1,641)		고령자 (n=359)	
	Mean (%)	SD (%)	Mean (%)	SD (%)
[1] 시장경제의 기본원리	74.89	43.38	58.22	49.39
[2] 금융소비자정보의 탐색과 활용	70.20	45.75	69.08	46.28
[3] 금융소비자 피해예방	82.21	38.26	77.72	41.67
[4] 현금관리와 재무상태	92.38	26.54	86.63	34.08
[5] 저축과 투자	48.81	50.00	35.10	47.79
[6] 연금과 은퇴설계	74.83	43.41	69.36	46.16
[7] 소비자금융과 신용	59.66	49.07	56.82	49.60
[8] 위험과 보험	67.89	46.71	58.77	49.29
정답률 소계	71.36	18.43	63.96	2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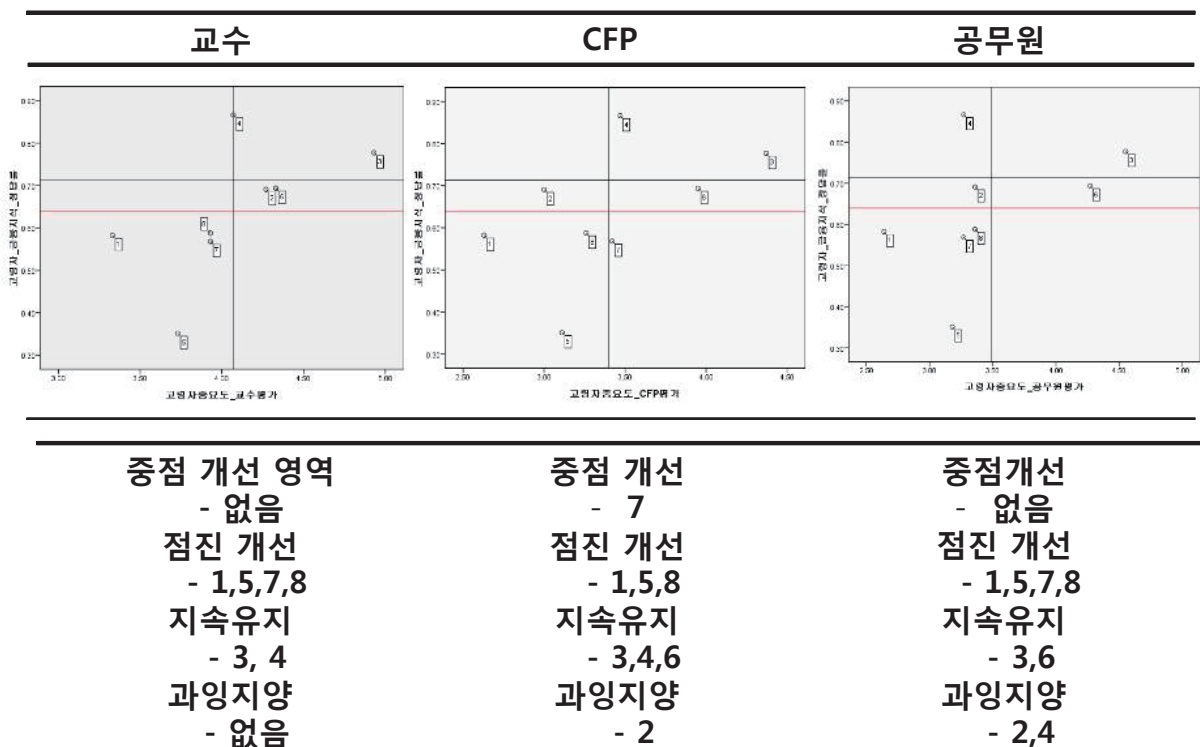
4.3 일반 성인 IPA 중요도 평가 집단별 특성에 따라 세 차례 반복 실시



4.4 고령자 IPA (1) 지식 수준(X축)을 일반인 평균(0.71)으로 설정시 → 중점개선 영역이 발생



4.4 고령자 IPA (1) 지식 수준(X축)을 고령자 평균(0.64)으로 설정시 → 중점개선영역이 일부 사라지고, 과잉지양 영역이 추가발생



4.5 금융교육 추진 현황 기반의 방향성 논의(1)

- **IPA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주요 기관의 금융교육 추진 방향의 적절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FSS의 금융교육 추진 실적을 내용분석함**
 - FSS는 아카데미 개설 이후 월 1회 실시한 일반 성인 대상 금융교육 강의 136회 가운데 134회의 주제를 온라인에 공개(2회는 누락)하고 있음
 - 연구자 2인이 134개 주제를 8대 중영역에 분류한 다음, 분류 결과를 교차하여 확인하고, 불일치 하는 부분을 논의하여 분류를 최종 결정함
 - [5] 저축과 투자 29%
 - [1] 시장경제의 기본원리 22%
 - [3] 금융소비자피해예방 19%
- **이 밖에도 FSS의 교재 개발 실적과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의 온라인 자료 발간 실적을 같은 방식으로 내용분석함**

4.5 금융교육 추진 현황 기반의 방향성 논의(2)

- 추진실적 내용분석 결과와 IPA분석 결과 겹쳐보기

	FSS 교재	FSS 아카데미	한국금융투자자 보호재단 온라인자료	계
	N(%)	N(%)	N(%)	N(%)
[1] 시장경제의 기본원리	0 (0.0)	30 (22.4)	3 (15.8)	33(17.9)
[2] 금융소비자정보의 탐색과 활용	9 (29.0)	11 (8.2)	0 (0.0)	20(10.9)
[3] 금융소비자 피해예방	10 (32.3)	26 (19.4)	2 (10.5)	38(20.7)
[4] 현금관리와 재무상태	0 (0)	2 (1.5)	0 (0)	2(1.1)
[5] 저축과 투자	3 (9.7)	39 (29.1)	5 (26.3)	47(25.5)
[6] 연금과 은퇴설계	5 (16.1)	2 (1.5)	7 (36.8)	14(7.6)
[7] 소비자금융과 신용	3 (9.7)	11 (8.2)	1 (5.3)	15(8.1)
[8] 위험과 보험	1 (3.2)	13 (9.7)	1 (5.3)	15(8.1)
총계	31 (100)	134 (100)	19 (100)	184(100)

V. 결론

1. 금융교육 추진 방향에 관한 논의
2. 연구의 한계
3. 연구의 의의와 후속 연구

5.1 금융교육 추진 방향에 관한 논의(1) 일반 성인 대상 금융교육

- 중점 개선 영역과 금융교육 운영 내용의 불일치성이 발견됨

IPA 중점 개선 영역	금융 교육 운영 영역
[5] 저축과 투자 (이자율 계산) [7] 소비자금융과 신용 [8] 위험과 보험	[3] 금융소비자 피해예방 [5] 저축과 투자

- 향후 중점 개선 영역에 해당하는 [7], [8]중영역에 대하여 교육과정
개설과 교육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 [7] 소비자금융과 신용
 - [8] 위험과 보험

5.1 금융교육 추진 방향에 관한 논의(2) 고령자 대상 금융교육

- 한국소비자원은 연간 130회 이상의 고령자 대상 소비자교육을 실시
 - 금융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이며(2018, 2019년 집계)
 - 주 교육 내용은 [3]금융소비자피해예방(지속유지 영역)에 해당
- 교수/CFP/공무원이 [6] 연금과 은퇴설계가 "중점 개선" 영역에 해당함에 의견 일치
 - 은퇴기 소득은 예상되는 각종 연금과 저축액 및 부동산 수익 등을 모두 더하여 구한다. (○) (고령자 정답 69%; 일반 성인 정답 75%)
- 향후 고령자 대상 금융교육은 [6], [7] 중영역에 대하여 노인대학용/경로당용 교육과정 개설과 교육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 [6] 연금과 은퇴설계
 - [7] 소비자금융과 신용

5.2 연구의 한계

- 금융교육 대상자를 연령대와 특성에 따라 더 촘촘하게 세분화 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나, 전문가 조사시 반복 질문으로 인한 문제가 우려되어 실행하지 못함
 - 학교 금융교육: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 직장 금융교육: 사회초년생, 근로 장년층(working adults)
 - 기타 대상집단: 군인, 저소득층 등
- 중영역별 소비자지식 측정 문항 수를 보강할 수 있다면 좋았을 것이나, 2차 자료 활용의 한계상 하지 못함
- 소비자의 금융역량을 지식 외 태도나, 실천 수준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석했다면 좋았을 것이나 2차 자료 활용의 한계상 하지 못함
 - 금융교육의 효과는 금융지식 외에도 금융행동(노후준비, 재무관리), 금융태도, 만족도 등의 변수를 활용하여 살펴볼 수 있으나(고은희·주소현(2017), 본 연구는 지식 문항만 분석에 활용함

5.3 연구의 의의와 후속 연구

- 금융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FPR내에서 금융교육 관련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은 가운데 실시한 금융교육 관련 연구임
 - 2007-2017 사이 전체 185편 가운데 6편(3.3%)이 금융교육 연구임 (주소현, 최현자, 2017)
- 본 연구의 특징은 Primary data(전문가조사)결과와 Secondary data(집단별 소비자 금융지식)를 조합하여 IPA분석을 실시했다는 점임
- 이민자 대상 금융교육 내용의 중요도 평가에 관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향후 KCA가 이민자 대상 금융 지식을 측정한다면, 이민자 금융교육에 관한 IPA분석도 수행 가능함

한국FP학회 2019년 동계 학술대회

감사합니다.

손지연(json@kca.go.kr)
박주영(jooyungpark@cnu.ac.kr)

X세대와 밀레니얼세대의 금융상품보유행태 비교

2019년 12월 7일

한국 FP학회 동계 학술대회

유명수, 이화여자 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 수료

주소현, 이화여자 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고은희, 이화여자 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 왜 세대 연구가 중요한가?

- 한국 사회와 세대 연구의 중요성
 - 고령화로 인한 노인 세대의 증가
 - 세대간 이해 관계의 상충
 - 세대 갈등 및 세대 통합의 중요성
 - 새로운 세대의 부각에 따른 세대 이해의 필요성

세대의 구분

저자	전쟁세대	베이비부머	X세대		N세대	밀레니얼세대
주소현, 김정현 (2011)	~1954년생	1955~1963년생	1964~1974년생		1975년생~	
이은희 외 (2015)	~1953년생	1954~1963년생	(민주화세대) 1964~1970 년생	1971년~1976 년생	(एको세대) 1977년생~1987년생	
손지연 (2017)	~1955년생	1955~1963년생	1964~1978년생		(एको세대) 1979년~1994년생	
정순돌 외 (2018)	~1954년생	1955~1963년생	1964~1974년생		1975~1987년생	(M세대) 1988년생 이후
권정윤, 김난도 (2019)	(전후세대) ~1954년생	1955~1963년생	(민주화세대) 1964~1970 년대중반	1970년대 중반~		
본 연구			1964~1974년생			1988~1998년생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 왜 이 두 세대를 살펴보아야 하는가?

- X 세대 (1964~1974년생, 45~55세)
 - 현재 한국사회의 중간 연령층
 - 베이비부머 다음 세대
 - 소득이 높고 투자에 관심이 많은 세대
- 밀레니얼 세대 (1988~1998년생, 21~31세)
 - 세계적으로 인구수가 많은 세대
 - 다음 세대의 중심
 -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대변하는 세대

본 연구의 목적

-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금융상품 보유 행태의 차이를 파악
- 금융상품보유행태와 관련을 보일 수 있는 변수(재무적 자기효능감, 자기과신, 투자위험수용성향)의 차이를 파악
- 금융상품 보유 행태 및 관련 변수의 결정 요인을 탐색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차이를 살펴보고 향후 각 세대의 재무설계 니즈를 파악하고자 함

선행연구

-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금융보유 행태 특성
 - X세대
 - 자산 및 소득수준이 높은 세대 (정순돌 외, 2018)
 - 미래 지향적이고 건전한 재무 관리 행동을 보임 (손지연, 2017)
 - 밀레니얼 세대
 - 보험 가입률이 낮으나 가입의향은 높음 (보험연구, 2019)
 - 암호화폐 투자 가능성이 높음 (김민정 외, 2019)

선행연구

- 재무적 자기효능감
 - 재무목표 성취 및 재무적 문제 해결을 위한 믿음(Grabowski, 2006; Weaver et al., 2009).
 - 금융지식, 투자성과 및 금융상품 선택 등과 같은 재무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줌(조혜진, 장연주, 2015).
 - 세대간 차이를 보인다는 선행연구 존재 (정순돌 외, 2018)
- 자기과신
 - 투자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여겨지며 배경변수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 존재
- 재무위험수용성향
 - 위험에 대한 수용정도에 따라 개인의 보유 자산 포트폴리오가 달라짐.
 - 일반적으로 연령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가 다수 존재

연구 방법 및 연구 문제

- 조사대상
 - X세대(319명) 및 밀레니얼세대 (316명) 남녀 각 300여명
- 조사방법
 - 조사업체를 통한 온라인 조사, 2019년 4월
- 연구문제
 - 밀레니얼과 X세대의 금융관련 태도(재무적 자기효능감, 투자에서의 자기과신, 위험수용성향)은 차이를 보이는가
 - 밀레니얼과 X세대의 금융상품 보유현황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밀레니얼과 X세대의 금융상품 보유 행동과 관련을 보이는 요인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응답자 특성

		밀레니얼세대 (N=316)		X세대 (N=319)		χ^2 (p)
		빈도	%	빈도	%	
연령	평균	26.85		48.79		
성별	남성	153	48.4	164	49.8	.456
	여성	163	51.6	156	50.2	
교육수준	고졸 이하	16	5.1	57	17.9	337.382***
	대학교 이하	278	88.0	222	69.6	
	대학원 이상	22	7.0	40	12.5	
혼인상태	미혼	282	89.2	52	16.4	339.377***
	기혼	34	10.8	265	83.6	

*** p < .001, ** p < .01, * p < .05

응답자 특성

		밀레니얼세대 (N=316)		X세대 (N=319)		χ^2 (p)
		빈도	%	빈도	%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27	8.5	17	5.3	17.549**
	200-400만원 미만	102	32.3	64	20.1	
	400-600만원 미만	93	29.4	123	38.6	
	600-800만원 미만	47	14.9	62	19.4	
	800만원 이상	47	14.9	53	16.6	
	평균(중간값)	498.08(450)		524.17(500)		
직업	유	185	61.1	239	80.7	28.062***
	무	118	38.9	57	19.3	
주택자가보유여부	자가	205	64.9	236	74.0	6.206*
	없음	111	35.1	83	26.0	

세대간 금융관련 태도의 차이

금융관련태도	밀레니얼세대 (N=316)	X세대 (N=319)	t검정
자기과신 (박주영 정운영 2013, 6문항, 신뢰도 $\alpha = 0.84$)	14.7722	14.0470	-2.123***
재무적자기효능감 (Lown 2011, 정순돌 외 2018, 6문항, 신뢰도 $\alpha = 0.80$)	16.1171	15.3950	-3.031***
위험수용성향 (Grable & Lytton 13 문항, 주소현, 2017, 신뢰도 $\alpha = 0.73$)	25.2532	24.3103	-2.368

세대간 금융관련 태도의 차이

자기과신

	밀레니얼 세대 (N=316)		X세대 (N=319)		χ^2 (p)
	빈도	%	빈도	%	
6~9점	38	12.0	32	10.0	12.603** (.002)
10~18점	217	68.7	255	79.9	
19점이상	61	19.3	32	10.0	

재무적 자기효능감

	밀레니얼 세대 (N=316)		X세대 (N=319)		χ^2 (p)
	빈도	%	빈도	%	
6~11점	23	7.3	16	5.0	13.305** (.001)
12~18점	227	71.8	267	83.7	
19점 이상	66	20.9	36	11.3	

*** p < .001, ** p < .01, * p < .05

금융상품 보유 행태 – 금융상품의 구분

	집단 1	집단 2	집단 3	집단 4
금융상품 종류	적금, 정기예금 CMA · MMDA · MMF 보장성 보험	적금, 정기예금 CMA · MMDA · MMF 보장성 보험	적금, 정기예금 CMA · MMDA · MMF 보장성 보험	적금, 정기예금 CMA · MMDA · MMF 보장성 보험
		저축성보험 개인연금	저축성보험 개인연금	저축성보험 개인연금
			ELS,ELD 펀드, 채권, 국내주식	ELS,ELD 펀드, 채권, 국내주식
				해외주식, 선물옵션 암호화폐

금융상품 보유 행태

금융상품보유		밀레니얼세대 (N=316)	X세대 (N=319)	χ^2 (p)
정기예금	현재 또는 과거에 보유	236(74.7)	278(87.1)	17.13***
	보유하거나 저축 및 투자 경험 없음 무슨 상품인지 모름	80(25.3)	41(12.8)	
CMA, MMDA, MMF	현재 또는 과거에 보유	128(40.5)	169(52.7)	24.67***
	보유하거나 저축 및 투자 경험 없음	121(38.3)	126(39.5)	
	무슨 상품인지 모름	67(21.2)	25(7.8)	
보장성 보험 (의료실비보험, 종신보험, 주택화재보험 등)	현재 또는 과거에 보유	203(64.2)	281(88.1)	49.92***
	보유하거나 저축 및 투자 경험 없음	92(29.1)	32(10.0)	
	무슨 상품인지 모름	21(6.6)	6(1.9)	

*** p < .001, ** p < .01, * p < .05

금융상품 보유 행태

금융상품보유		밀레니얼세대 (N=316)	X세대 (N=319)	χ^2 (p)
저축성 보험 (양로보험, 교육보험, 등)	현재 또는 과거에 보유	66(20.9)	158(49.5)	68.872***
	보유하거나 저축 및 투자 경험 없음	195(61.7)	147(46.1)	
	무슨 상품인지 모름	55(17.4)	14(4.4)	
개인연금 (연금저축, 개인연금보험 등)	현재 또는 과거에 보유	114(36.1)	201(63.0)	48.99***
	보유하거나 저축 및 투자 경험 없음	180(57.0)	112(35.1)	
	무슨 상품인지 모름	22(7.0)	6(1.9)	

*** p < .001, ** p < .01, * p < .05

금융상품 보유 행태

금융상품보유		밀레니얼세대 (N=316)	X세대 (N=319)	χ^2 (p)
펀드	현재또는 과거에 보유	93(29.4)	160(50.2)	29.58***
	보유하거나 저축 및 투자 경험 없음	194(61.4)	144(45.1)	
	무슨 상품인지 모름	29(9.2)	15(4.7)	
채권	현재또는 과거에 보유	27(8.5)	56(17.6)	15.75***
	보유하거나 저축 및 투자 경험 없음	243(76.9)	237(74.3)	
	무슨 상품인지 모름	46(14.6)	26(8.2)	
ELS, ELD	현재또는 과거에 보유	19(6.0)	48(15.0)	25.71***
	보유하거나 저축 및 투자 경험 없음	176(55.7)	198(62.1)	
	무슨 상품인지 모름	121(38.3)	73(22.9)	
국내 주식	현재또는 과거에 보유	101(32.0)	186(58.3)	44.63***
	보유하거나 저축 및 투자 경험 없음	189(59.8)	115(36.1)	
	무슨 상품인지 모름	26(8.2)	18(5.6)	

*** p < .001, ** p < .01, * p < .05